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일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 2의 창학원년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광주 19/31℃ 목포 18/28℃ 여수 20/26℃
단기 4343년 (음력 5월 13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708호 1판 2010년 6월 24일 목요일

16강 해냈다, 8강도 해낸다

이정수·박주영 골 조2위…원정 첫 쾌거

26일 밤 11시 우루과이와 8강행 격돌

B조 순위

	국가	승	무	패	득/실	승점
1	아르헨티나	3	0	0	7/1	9
2	대한민국	1	1	1	5/6	4
3	그리스	1	0	2	2/5	3
4	나이지리아	0	1	2	1/5	1

오늘밤의 월드컵

슬로바키아 F 이탈리아 〈24일 23:00〉

파라과이 F 뉴질랜드 〈24일 23:00〉

덴마크 E 일 본 〈25일 03:30〉

카메룬 E 네덜란드 〈25일 03:30〉

스코어 보드

멕 시 코	(1승1무1패)	0	A	1 (2승1무)	우루과이
프 랑 스	(1무2패)	1	A	2 (1승1무1패)	남 아 공
대한민국	(1승1무1패)	2	B	2 (1무2패)	나이지리아
그 리 스	(1승2패)	0	B	2 (3승)	아르헨티나

월드컵 16강 지면안내

② 허정무 감독 리더십
③ 우루과이 나와라
④ 더 많이 더 빨리 뛰었다
⑤ 한국 월드컵 도전사
⑥ 태극전사 돈방석
⑦ 응원열기 화보
⑧ 정치권 모처럼 한마음
⑨ 온통 축제 분위기
⑩ 후원기업들 함박웃음

꿈이 또 이뤄졌다. 태극전사들이 월드컵 출전사상 처음으로 원정 16강 진출이라는 신화를 달성했다. 본선 무대에 처음 얼굴을 내밀었던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서 참담한 패배를 경험했던 선배들의 한을 풀어준 값진 승전보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 창조에 이어 다시 한번 한국 축구의 새역사를 쓴 것이다. 이제 26일 밤 우루과이를 깨면 대망의 8강이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3일(한국시간) 더반의 모저스 마비다 스타디움에서 열린 나이지리아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B조 조별리그 최종 3차전에서 칼루 우체에게 선제골을 내주고도 이정수의 동점골과 박주영의 추가골로 역전에 성공한 뒤 야쿠부 아이예그베니에게 페널티킥 골을 허용해 2-2로 비겼다.

이로써 1승1무1패(승점 4점)를 기록한 한국은 같은 시각 그리스를 2-0으로 누르고 3전 전승을 올린 아르헨티나에 이어 조 2위로 16강에 올랐다. 그리스는 1승2패, 나이지리아는 1무2패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허정무 감독은 그리스와 조별리그 1차전 2-0 완승을 지휘해 월드컵에서 처음 승리를 지휘한 한국인 감독이라는 영예를 안은 데 이어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이라는 쾌거까지 일궈냈다.

허 감독은 경기 직후 "이제 갈 때까지 가야 한다. 우리 선수들 아직 양이 차지 않을 것이다"고 밝혀 8강 진출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한국은 오는 26일 밤 11시 포트엘리자베스의 넬슨만델라베이 스타디움에서 A조 1위 우루과이와 8강 진출을 다툰다.

한국은 전반 12분 순간적인 수비 실수로 선제골을 내줬다. 수비형 미드필더 김정우가 빠른 드리블을 하는 치디 오디아에게 오른쪽 측면을 뚫렸고 오디아가 김정우를 뿌리치고 낮게 크로스했다. 왼쪽 페널티지역에 도사리던 칼루 우체가 차두리를 뒤에 두고 오른발로 마무리해 골망을 흔들었다.

태극전사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한국은 전반 38분 이영표가 얻은 프리킥을 기성용이 오른발로 감아찼고 이정수는 지체 없이 달려들며 골로 연결했다.

박주영은 후반 4분 대니 시투의 파울로 아크 왼쪽에서 프리킥을 얻어낸 뒤 키커로 나서 오른쪽 골네트에 역전골을 성공시켰다.

반격에 나선 나이지리아는 후반 24분 동점골을 뽑아냈다. 교체 투입된 김남일이 왼쪽 페널티 지역에서 마크하던 오바시의 공을 가로채려다 뒷다리를 걷어찬 것. 키커로 나선 아이예그베니는 골키퍼 정성룡을 속이고 왼쪽 골문으로 침착하게 차 넣어 2-2 동점을 만들었다. 김남일의 수비 실수가 부른 동점골이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3일 새벽 호외 발행

학교설립 56주년(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봤느냐! 박주영의 포효 23일 남아공 더반 스타디움에서 열린 월드컵 한국 대 나이지리아 경기에서 박주영이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